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거진항 일원에서 개최된 제13회 고성명태축제가 궂은 날씨 속에서도 많은 관광객과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고성명태는 행운이다’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27일 오전 11시 간성을 수성제단에서 열린 제례행사를 시작으로 막이 올라 30일까지 나흘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고성명태의 브랜드를 널리 알렸다. 제13회 고성명태축제 이모저모를 화보화 함께 실었다.



지난 27일 제13회 명태축제장을 찾은 관광객과 주민들이 상가를 둘러보고 있다.



고성명태 생산자협회 회원들이 판매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고성태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명태경매 체험장에서 경매자와 관광객이 명태가격을 놓고 흥정을 벌이고 있다.



제13회 고성명태축제 기간인 지난 29일 오전 9시 화진포 호수와 바다를 둘러싼 거진해안도로를 만끽할 수 있는 제7회 평화통일염원 고성군민 한마음걷기대회와 2011년 화진포해맞이 산소길 걷기축제가 열렸다. 이날 걷기 대회는 오전 9시 화진포해양박물관 옆 광장에서 집결한 뒤 참가자 등록과 스포츠댄스공연에 이어 개회식을 시작으로 거진해안도로와 거진등대공원을 거쳐 고성명태축제 행사장까지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걸었다. 집결지에 도착한 참가자들에게는 기념품으로 고성오대미(1kg)가 지급되고,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도 전달됐다.